

성경해석학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Th.D., Harvard)외 다수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이유선 (Daughter)

제 2 강

해석을 위한 준비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2 강 해석을 위한 준비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성령님에 대한 의존(Dependence on Holy Spirit)	1
A. 영감(Inspiration)	2
1. 신적 근원(Divine Source)	6
2. 인적 수단(Human Means)	10
B. 조명(Illumination)	11
III.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Need for Human Effort)	14
A. 중요성(Importance)	14
B. 영향들(Influences)	17
1. 석의(Exegesis)	17
2. 상호 작용(Interaction)	18
3. 체험(Experience)	19
IV. 결론(Conclusion)	21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2 강 해석을 위한 준비(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I. 서론(INTRODUCTION)

어떤 과업을 시작할 때마다 올바른 종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누가복음(14:28-29)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생각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길 원했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예로 드셨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활동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확장되는 복잡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강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강좌인 성경해석학의 두 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해석을 위한 준비”이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유용한 일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해석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의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그럼 먼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살펴보자.

II. 성령님에 대한 의존(DEPENDENCE ON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을 언급할 때, 우리 모두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사, 곧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 주심을 강조하는 교파 출신일지 모른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은 신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성령님의 행위를 최소화하는 교파 출신일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 해석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출신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확신과 도전이 될 것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사역에 맡겨야 하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분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해석학에 대한 현대의 학술 서적과 강의는 성령님의 역할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해석학을 마치 비인격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저 원리나 방법의 목록을 실행해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해석을 다루는 해석학은 인간 해석자와 성령님 자신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다.

성경 해석에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영감의 원천이셨다. 둘째로, 성령님은 인간 해석자들에게 조명을 주신다. 그럼 먼저 영감의 문제를 살펴보자.

A. 영감(INSPIRATION)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삶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의 책들이 도움이 되었던 한 저명한 저자를 직접 만날 기회를 가졌던 때가 기억난다. 나는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앉아서 그의 책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했다. 대화 중 어느 순간에 나는 그의 책들 중 하나에서 얻은 특별히 유익했던 통찰에 대하여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자네는 전혀 틀리게 읽었네. 그것은 내가 쓴 것이 결코 아니라네.”라고 말했다. 줄잡아 말해도, 그때 나는 어쩔 줄 몰라했다. 그러나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에게 “글쎄요, 그 책을 쓰신 분이니 저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여러 면에서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감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분의 책에 대한 통찰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영감의 교리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께서서는 인간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쓰게 하였고 그들의 기록이 오류가 없도록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셨다.

베드로가 이런 개념을 벵후 1:20-21 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벵후 1:20-21 개역개정)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유래되었고 성령님께서 인간들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은 그들이 쓴 것이 절대적으로 참되고, 인간 저자들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증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디모데후서 3 장 6 절에서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했다.

(통[Stephen Tong] 목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연결된 유기적 진리이고, 생명에 기초하고 있고 생명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생명의 말씀인 놀라운 책이다.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이시므로 진리이다. 성령님이 자신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오바댜나 요나나 어느 누구의 책을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한 분 성령님께서 그 선택된 단어들을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배후에 있는 정신은 동일하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는 사상에 헌신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견해를 거의 항상 지지해 왔다. 그럴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영감에 대한 세 가지 견해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낭만적/공상적(romantic)" 영감설을 믿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속적인 시인들이나 작곡가들이

감동받아서 그들 자신의 작품을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가 아니고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사상과 의견일 뿐이다.

둘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소위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비교적 수동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구술하시고 인간 저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

셋째로,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영감 사역이 “유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기록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들을 감독하시고 지도하셨다. 그 결과로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시에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의 기록을 감독하실 때, 그들의 개성, 경험, 견해, 의도 등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또한 전적으로 인간 저자들의 말이다. 이 세 번째 견해가 영감의 본질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언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아이리히[Howard Eyrich] 박사)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그들 나름의 개성이 글쓰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과 사용한 언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개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나는 성경 저자들에는 제사장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동도 있고, 왕도 있고, 의사도 있으며, 우리 문화 기준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존재한 어떤 다른 언어보다도 헬라어를 사용하여 신학적 사색을 위한 적절한 표현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벤후 3:15 에서 베드로가 영감의 유기적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개역개정 벵후 3:15)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밝혔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는 이 서신들을 바울의 것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썼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서신들은 성령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다.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말은 사실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 또한 사실이다: 그 모든 말씀이 진짜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각각 감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문예적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진짜 말씀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슬픔과 열정을 느끼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의 의학적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안목과 그의 역사와 정확한 역사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성경 저자들의 개성과 체험이 성경 안에서 밝히 드러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영감과 능력 어느 하나도 상실하지 않고 일어난다.

(복[Darrell L. Bock] 박사)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스타일들이 다르고 저자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다양한 것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복음은 행동 장면들을 많이 제시하며 담화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 요한복음은 담화로 가득차 있고 다른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이

저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 배경,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썼다. 이것은 비슷한 분야를 다룬 다양한 책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감독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 배후에 계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영감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해석이란 과업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기적 영감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성령님이 성경의 신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실 때 인적 수단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성령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신적 근원이란 개념을 살펴보자.

1. 신적 근원(DIVINE SOURCE)

모든 성경을 영감하신 분으로서 성령님은 성경의 의미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에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

(바우어[David R. Bauer] 박사) 나는 성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위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그것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불신자들의 개종을 위한 복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교회가 믿고 내가 그 주장에 동의하는 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원천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다루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승인했다. 그들은 인간 저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임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 장 25 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 편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며 교회의 기도를 인도했다.

(행 4:25) 주(=당신님)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히 3:7-8 은 시 95:7-8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역개정: 히 3:7-8)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구절들을 포함한 여러 구절들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님을 영감하시는 분, 따라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영감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의존했다.

성경의 신적 기원이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경의 신임성이다. 불행하게도, 때때로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에 성령님이 관여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이 성경을 오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요 14:16-17 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요 14:16-17) 아버지께서 . . .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암시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영감하신 성경도 전적으로 믿을 만한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석을 위한 우리의 준비의 일부는 성령님과 그분이 영감하신 성경의 절대적인 신임성을 시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누네즈[Nunez] 박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다고, 곧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졌다([세오프뉴토스])고

말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졌다면, 그 원천이 완전하고, 그 원천이 무오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 성령님이 그것을 영감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내가 말씀을 연구할 때 나에게 조명과 이해를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연구가 원래 그 말씀을 영감하신 분의 이해에 바탕을 두도록 그것을 영감하셨기 때문이다. 한 책의 저자보다 더 나은 스승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책(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스승이 성령님이시라면, 원래 그것을 쓰셨던 그 스승님 자신보다 말해진 것과 영감된 것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확신에 대하여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편지 82 의 1 장 세 번째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이러한 존경과 영예를 오직 정경으로 승인된 성경 책들에만 돌리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정경 책들에 대해서만 저자들에게 전혀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어거스틴의 말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초대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를 밝히 보여주고 성경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해석자에게도 도전이 되는 성경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때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과학,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외견상 이렇게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해석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해결책이 다른 것은 성경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해석자들의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권위 있게 성경을 영감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 자신의 이해를 더 높이 평가하며 비평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의 권위 있는 영감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드러내거나 증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이 참되고 잘 조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제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단지 인간이 지은 또 다른 책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으로 영감된 하나의 책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저 또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체를 통해 자신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는 거룩한 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적인 오류성과 나의 인간적인 죄성이 성경의 진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도록 독자와 해석자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한다.

(포이스레스[Vern Poythress] 박사) 해석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경을 영감하셨다. 따라서 분명코 우리는 성경의 주된 저자는 누구시고 그분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둘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정확한 이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 장 14 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역개정: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성경의 신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유기적 영감 교리의 두 번째 측면, 곧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시는 데 인적 수단을 사용하신 것을 다룰 것이다.

2. 인적 수단(HUMAN MEANS)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몰몬교도들과 회교도들이 그들의 경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직접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처럼 행동한다. 몰몬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태의 몰몬경을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 주었다고 믿는다. 회교도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코란경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식이 아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성경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 작성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양한 인간들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인간 저자들의 어떤 영향이나 참여를 없앨 수도 있으셨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한 부분을 쓴 것을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도록 모든 구절을 계시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인간 저자들의 사상, 동기, 및 개성을 통하여 관여하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에는 그분이 유기적으로 성경을 영감하신 방식을 존중하는 것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과 성경이 그 인간 저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이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책들은 동일하지 않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단점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의 산물이다.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신적 저작성과 인적 저작성을 둘 다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준비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곧 그들의 개성, 체험, 관점, 및 강조점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인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왔는데, 인간 저자들은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여러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성경의 영감이 어떻게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지속적 조명 사역에 의존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보자.

B. 조명(ILLUMINATION)

성경해석학과 관련하여 조명은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포이스레스[Vern Poythress] 박사)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영감 사역이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래 저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그들이 쓴 것이 그저 인간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사역이다. 다른 하나는 조명 사역이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다. 성령님은 우리 기독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그분이 성경에 영감해 놓으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

성령님은 그분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신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지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 직관, 감정, 의지, 동기, 욕망, 도덕적 양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어느 부분도 성령님에 의해 조명될 수 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만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은 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조명하실 하나님 자신, 곧 성령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고전 2:11-13 에서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고전 2:11-13 개역개정)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그대로 알 수 있는 소망이 없음을 설명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조명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성령님의 조명은 자세하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들 중의 하나가 존 오웬(1616-1683)의 유명한 작품에 나온다. 오웬은 그의 작품 **성경에서 입증된 영적 조명(Spiritual**

Illumination Proved From Scripture)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유혹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모든 신적인 진리들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알고 믿어야 할 진리들을 깨달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그것들을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신다.

현명하게도 오웬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 안에 거하고” “유혹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잘 지적했다. 그러나 불신자들조차도 스스로 성경에서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신적 진리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성경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딤편 3:16 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상,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내뿜어졌다는 생각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열광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명”이란 단어는 그러한 개념의 모든 것을 잘 드러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영감하신 분이요 이해력과 사고력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요 성령님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이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계몽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임스[Thad James, Jr] 목사) 영감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키실 때 하셨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감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명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일환으로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탐구해 보자.

III.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NEED FOR HUMAN EFFORT)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알리는 몇 가지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그럼 먼저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A. 중요성(IMPORTANCE)

너무나도 자주, 선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인간의 노력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이 없이, 심지어 우리의 노력과 반대로, 일하시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부지런한 작업을 통해서 혹은 그것과 결부시켜서 조명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지만, 분명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리가 있다.

불행하게도, 어떤 그룹에서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준비를 할 때 인간의 노력처럼 보이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최소화한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주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동적인 독자들에게 오는 “영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이런 신자들은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딤후 2:15 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딤후 2:15) 너는 최선을 다해 네 자신을 인정된 자 곧 부끄러워 필요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한 은유에 유의하라. 디모데는 “일꾼”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에르가테스]는 자주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최선을 다해야 했고, 어떤 번역본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부지런해야” 했다.

성경의 해석자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밭의 노동자에 비유함으로써,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빈잔트 [Carey Vinzant] 박사)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공부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하여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기름부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근면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화의

과정도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특정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더 많이 생각하며 사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된다.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사실, 믿을 만한 해석은 고된 작업을 포함한다.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도구와 기회에 대한 의존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 성령님은 독자편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함한 인적 수단들을 통하여 성경이 전달되도록 의도하셨다.

사실, 보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를 조명하신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듯이, 전형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낭독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주신다.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척도의 한 쪽 끝에는 매우 분명해서 이해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본문들이 있다. 수세기에 걸쳐 개신교들은 구원을 위해 믿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해 왔다. 척도의 다른 끝에는 매우 어려운 많은 본문들이 있고 심지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본문들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이 두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다 더 분명한 부분은 준비하는 데 인간적 노력이 비교적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더 어려운 본문을 다룰 때, 적절한 준비를 하려면 보통 더 높은 수준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에서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가하시는 몇 가지 영향을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B. 영향들(INFLUENCES)

오늘날 선의의 성경 해석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외부적 영향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 경험을 없애고 선입견 없이 바로 성경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에 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제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애쓸지라도 항상 수많은 영향들을 받은 상태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영향들을 더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 영향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우리는 그것들을 따로따로 다룰 것이다.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영향은 우리의 사전(事前) 성경 석의이다.

1. 석의(EXEGESIS)

이 강좌의 목적상 우리는 석의를 “**성경 본문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석의는 특별히 역사적 맥락, 문학적 형식, 문법과 어휘의 사용, 신학적 배경 등과 같은 것들을 살피며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낸다. 석의에 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석의가 해석 작업을 위한 우리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성경의 석의와 관련하여 하는 모든 일은 성경의 후속적 해석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성경을 한 번 접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는 다음 번에 성경을 접할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의 어휘와 문법을 배울 때마다, 성경의 이러한 측면을 보다 더 믿을 만하게 다룰 우리의 능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내러티브, 율법, 시, 예언,

금언 등과 같은 문학적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 번에 그것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성경의 고대 역사에 관하여 배울 때, 한층 더 많은 이해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의 석의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우리가 후속적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석학에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미치는 두 번째 유형의 영향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호 작용이다.

2. 상호 작용(INTERACTION)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은 성경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자주 평가 절하되는 영향들 중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석의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다.

과거의 세상에 살았거나 현재의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도움을 될 수 있는 커다란 은사와 통찰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들은 귀중한 참고 문헌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건한 충고를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언어들과 문학과 역사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른 것들에 관하여 가르쳐 준다. 우리가 수중에 갖고 있는 성경들 자체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것들은 학자들, 번역자들, 편집자들, 발행자들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외에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교회나 교단을 포함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특정 기독교 공동체를 갖고 있다. 이 공동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전통을 공유한다. 우리가 목사들, 교사들, 다른 개개 신자들로부터 받는 입력 정보도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실패, 및 통찰을 통하여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배우고,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로 부터 배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 부터 배운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성경에 대한 우리의 모든 해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고 받아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미치는 세 번째 주요 영향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3. 체험(EXPERIENCE)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체험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석의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 강의의 이 시점에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혹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 고려하는 종류의 일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성경 해석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성숙과 성화는 성경을 해석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성경을 파악하는 우리의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신실할 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그들은 보통 성경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자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우리의 과거의 체험도 성경을 믿을 만하게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갖도록 해 준 체험들이 있다. 이러한 체험들은 성경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은 수치심에 관한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각 개인은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능력과 무능력,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소우네스[K. Erik Thoennes] 박사) 우리의 죄는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불의하게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에 주는 왜곡시키는 영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이르렀을 때 죄의 그러한 곡해시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일들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키너[Craig S. Keener] 박사)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성경 해석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세기 전에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성경 해석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길이었으므로, 만일 그들이 노예들로 설교를 듣도록 허용했다라면, 그들은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에베소서 6 장 5 절을 가지고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6 장 9 절 곧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는 말씀에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만일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다시 말해, 주인이 실제로 종을 섬겨야만 한다면—아마도 노예 제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동기를 파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의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 접근하여 그들이 사는 방식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정반대의 문제를 갖기도 한다. 그들이 항상 정죄를 기대하거나 항상 죄책감을 기대하는 배경에서 왔다면, 그들 또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전제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 대신,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IV. 결론(CONCLUSION)

해석을 위한 우리의 준비에 관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과 성령님의 조명이란 교리의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고찰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적인 노력에 가하시는 몇 가지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복종하는 자세로 성경에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셨고, 아버지께서 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조명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경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노력을 쏟아 붓도록 정해 놓으셨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복합적인 일이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를 더욱더 잘하게 될 것이다.